

축산물등급판정 시행성과

등급기술부 운영팀

축산물등급판정제도는 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 까지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써 정부에서 수입축산물의 화고를 낮추기 위해 '9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축산물등급판정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한 제도이다. 동 제도를 시행한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등급판정 시행 초기에 한우 출하 생체중이 약 450kg 정도 이었던 것이 현재는 600kg의 넓어지고 있다. 등급판정기준 제정당시의 한우수소 거세율은 0%에 가까웠으나, '03년 현재 수소의 거세율이 30%를 육박하고 있고, 젓소 수소의 거세율은 '97년의 2%에서 '04년도에는 78%로 급격한 증가를 보여 등급제도시행에 따라 고급육생산의 기초를 다지는데 일조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 '93년도의 출하 도체중(박피기준)이 65kg이었던 것이 '03년도에는 77.3kg에 이르렀고, 등지방두께 또한 4~12mm가 '04년도에는 12~22mm로 두꺼워 졌다. 계란등급판정은 '02년 12월 처음 시작하여 현재 9개소에서 월평균 850만개 판정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은 '03년 4월 시작 이래 '04년 현재 4개소에서 월평균 13만수 정도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판정 대상증가 및 물량확대는 소비자의 축산물에 대한 고급화 규격화 선호가 등급판정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소도체 등급판정 성과

❖ 생산기반의 안정적인 토대 마련

한우산업의 위기와 발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암소도축비율을 보면 '97년도 53%에서 '00년도에는 57%까지 높아지던 작년에 42%로 감소하였다. 정부에서는 품종개량화 정책의 일환으로 거세장려금을 농가에게 지급하면서 거세율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수입육의 이파자 당초에 농가들이 생각한 것 보다 크지 않게 차등판에 따라 한우산업의 생산기반인 암소도축비율도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안정적인

한우산업기반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생산능가의 고급육 사육의지를 고취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내년도에는 고급육생산농가에게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80억원을 확정하였다. 생산부문에서 등급판정 성과를 보면 ①등급에 따라 가격이 차등화 되면서 과거 육량위주의 거래에서 품질의 질을 높이는 고부가가치 상품생산 및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②생산자 단체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생산기반조직의 확대가 유도되고 있고 ③등급판정결과를 생산경영에 참고로 경영지표를 세우는데 일조하여 품질향상에 효율화를 기하게 되었고 ④출하체중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 축산물 총생산량의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



돼지도체 등급판정 성과

❖ 유통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①과거의 육량위주의 생축유통중심에서 지육유통으로, 나아가 부분육유통으로 유도되고 있으며 ②온도체 유통에서 냉도체 유통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가능하였고 ③과거 쇠고기의 부정유통의 대표적인 강제급수행위 근절로 육질저하 방지 ④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활용으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 제고 ⑤등급표시로 가격정산기반조성 등 육류유통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 졌다.

소비부문에서는 육류소비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하여 ①다양한 품질의 고기 선택이 가능하도록 소비지표를 제공하고 있으며 ②지불가격에 상응하는 품질별 소비기반을 마련하였고 ③요리용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알맞은 부위별 및 등급별 선택이 가능토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 생산, 유통, 소비의 질적인 변화가 두드러 졌다.

지난 10년간 한우 1등급이상 고급육의 출현율 상승을 보면 10.7%('93) ⇒ 18.4%('97) > 29.9%('01) ⇒ 34.5%('04.10)로 매년 고급육생산이 높아지고 있어 수입육과의 차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03년도 전국 도매시장 · 공판장에 상장 · 경매된 한우도체의 1'등급과 1등급과의 Kg당 가격차이는 944원, 1'등급과 2등급의 가격차는 2,468원, 1'등급과 3등급의 가격차는 5,118원으로 나타나 육질등급별 가격차분화로 유통의 효율화가 가능하여 졌다.

❖ 부분육상장 경매 시행으로 부분육시장 활성화 유도

'02년부터 쇠고기 부분육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위해 부분육 상장 · 경매 및 등급표시 확인업무 시행중에 있는데, '04년 현재 17개 등급표시대상업체에서 1일 약17부류 등급표시 확인하여 4개 도매시장에서 상장 경매되고 있으며, 한우 60%, 육우 75%의 낙찰율을 보이고 있어 지육거래에서 부분육거래로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분위기의 확대

등급제가 시행된 후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생겼고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가 공수익을 대변하고 있다.

등급제 시행초기인 '93년도 A등급 출현율이 5.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0.4%에 이르렀고 A와 B등급을 합하면 70.3%로 나타났다.

거세울의 증가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93년도 5.1%에 불과했던 수돼지의 거세율이 '03년도에는 97.8%로 거세를 하지 않은 수돼지를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 가격면에서도 '93년도에는 거세돈과 비거세돈의 가격차가 0.3%로 거의 무시될 정도였으나 '03년도에는 71.7%나 비싸졌다. 이것은 등급기준상에서도 비거세돈에 대해서는 2개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고품질육을 선호하고 농가들도 이에 대한 인식변화가 그 원인일 것이다.

❖ 육종 및 사양기술 발전 토대마련

축하체중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돼지고기가 제맛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적정한 사육기간과 축하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3년 65kg내외에 불과하던 도체중(농협서울 가세기준)이 '97년도에는 72kg으로 증가되었으며 '03년도에는 77.3kg에 이르렀다.

등지방두께의 증가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등급판정기준 제정 당시에는 딱피 A등급에 해당하는 등지방두께가 4~12mm에 불과하던 것이 '04년도에는 12~22mm로 늘어난 것은 등지방두께가 과다하지 않으면서도 품질 좋은 돼지고기 생산이 유도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정되어 온 것이다.

❖ 품질에 따른 가격차등화 유도

'04년 9월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의 A등급과 B등급이 kg당 333원의 가격차를 보였으며 이것을 산술적으로 1마리(80kg기준)로 환산할 경우 27천원, A와 C등급은 48천원의 소득차를 가져다준다. 금년

9월 전국의 180개 육가공업체중 38.9%인 70개소가 등급별로 원료돈을 정산하고 있으며 이를 두수로 살펴보면 육가공업체가 도축한 594천두중 55.0%인 326천두에 이른다. 등급별 정산업체 비율에 비해 마리수에 대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규모가 크고 안정화된 육가공업체와 계열화된 농가일수록 등급별 정산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관내 농가들이 좋아하는 돼지의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등급판정결과 A 또는 B등급을 받은 경우 일정액의 품질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의 유통문화 정착

축산물 유통의 형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등급제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돼지도체의 2분할이 완전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등급제의 시행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돼지도체의 2분할 정착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는가를 이해할 것이다.

❖ 안정적인 돼지고기 소비기반 구축

등급제 시행 초기인 '93년도와 비교시 '03년도에는 사육두수가 156%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하 생체중도 95kg에서 106kg으로 116% 증가하였다. 더불어 미미하던 돼지고기 수입은 6만여톤까지 증가함으로써 돼지고기의 공급물량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반면 구제역 및 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대일수출의 중단, IMF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 등 여러 가격하락 요인에도 돼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축산물등급제를 지렛대 삼아 맛있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유통을 확대 시킨데 힘입은 바가 크다고 본다.

이외에도 도축장 및 육가공장의 현대화 및 HACCP도입을 촉진시킨 것이라든가, 더 좋은 등급의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사료의 품질 개선과 육종산업 및 사양기술의 발달 등은 축산물등급제의 정착과 따로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계란등급제 성과

우리나라의 계란등급제도 도입의 발단은 '00년 4월 농림부장관의 경북지역 양계단지 방문시 양계농가들의 건의로부터 시작되었고, 농림부 및 관련기관의 검토 끝에 정부 주요 시책으로 채택되었으며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준비과정부터 시행기관으로 선정되어 '01년 12월부터 대구경북양계농협 대구집하장(현 한국양계 대구집하장)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 등급판정시행 집하장 확대

계란등급판정 과정을 거쳐 시판되는 등급란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이 있으며 품질에 있어서도 탁월하다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등급판정 물량은 매년 급격한 확대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등급판정 실적>

(단위 : 천개)

구분	'01년	'02년	'03년	'04.11	총계
수량	154	27,687	79,877	93,469	201,187
월평균	154	2,307	6,645	8,497	5,589

계란등급판정 시행 집하장 확대현황을 보면 ('01) 1개소 → ('02) 4 → ('04) 9개소로 확대 되었다.

❖ 불신감해소로 계란의 소비촉진 계기가 됨

계란의 외관판정 항목중 오염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세척·코팅을 권장함으로써 위생적인 계란생산을 유도하였으며, 계란 등급판정 실시전 일반란의 파각율이 15~20% 이상이었던 것이 등급란의 경우 5~7% 이내로 파각율이 대폭 감소되었고, 아울러 등급판정란은 개별계란에 등급판정일자 및 생산자번호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성을 증진시켰다.

❖ 양계농가의 소득 향상 및 안정적인 생산 체계 구축

기존 상인중심의 거래에서 등급란 생산업체와의



직거래로 전환함으로써 유통마진 등이 축소되어 생산자 몫의 이익증대를 가져왔다.

향후 추진과제

❖ 계란유통의 선진기법 도입

대형유통업체의 계란시장 직접참여 및 브랜드화 추진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 대형 식품업체에서도 계란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냉장유통체계 및 브랜드화 추진으로 계란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선진국으로 추진되는 양계산물 등급판정은 넘어야 할 산이 높아만 보인다.

❖ 소, 돼지도체 부분육거래의 확고한 자리매김
쇠고기 부분육거래시 등급판정결과가 항상 따라다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국내산 쇠고기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신뢰를 심어주어야 하겠다.

국내 축산물유통에서 돼지고기는 쇠고기에 비하여 부분육 유통이 더 활성화되어 있으나 등급별·성별로 구분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의 장애요소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향후 돼지 부분육 유통시 등급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닭고기등급제 성과

우리소에서는 '02년도에 축산연구소와 공동으로 닭고기 등급판정 기준 및 방법(안에 대한 현장적용 시험과 공청회 등을 거쳐 '03년 3월에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을 개정하여 고시(농림부고시제2003-14호, 2003.3.28.)하고, '03년 4월부터 (주)체리부로를 시작으로 농협목우촌, (주)하림, (주)우림인티그레이션 등 국내 계열화업체 4개소에서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 실시와 닭고기 등급판정 안내서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등급닭고기의 거래물량은 '03년 288천수에서 '04년 11월말 기준으로 1,171천수를 판정하므로 약 4.6배가 늘어났으며, '03년 11월에 34,199수를 판정하고 '04년 11월에 129,694수를 판정하여 최근 1년동안 닭고기 등급판정 월 실적은 약 3.8배가 증가하였다<표, 참조>.

<표. 닭고기 등급판정 실적>

(단위: 수)

구분	'03. 4	6	9	11
판정량	4,421	3,182	40,605	34,343

구분	'04. 3	6	9	11
판정량	34,199	150,751	103,991	129,694

❖ 소비자의 인식변화로 등급란 소비확대 유도
계란등급판정 참여희망 집하장에 대한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등급판정 시행작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까지 등급판정 시행집하장을 16개소로 확대하여 연간 4억개 이상 등급란을 생산하고, 계란등급제 조기정착을 위한 소비자 홍보강화 및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에 계란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을 추가하여 브랜드화 및 등급란 유통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단체급식시장 분야에 적극 홍보

국내 닭고기 계열업체 1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년여간의 사업성과가 반영된 닭고기 등급판정 사업에 대한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닭고기 등급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 다른 업체의 참여 농향을 고려하여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71.4%인 10개 업체로 관련업계에서도 동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소에서는 닭고기 등급제도의 시행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급식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분육 등급기준을 조속히 시행하여 국내 닭고기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